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 2020의 눈으로 2020년을 볼 때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2020년'은 그 의미가 깊다. 지난해 익숙하게 들으면서 살았지만 막상 달력이나 문서에 2020이 적혀 나오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21세기를 맞고 나서 20년이 흘렀다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1900년으로 오인해서 전산 시스템이 엉망이 될지 모른다는 '밀레니엄버그' 또는 'Y2K 문제'라는 말을 들으며 1999년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2020년은 경자(庚子)년이다.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쥐띠 해다.

쥐는 십이지(十二支)의 첫 번째 동물이다. 신이 십이지 동물의 순서를 정할 때 문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순번대로 정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걸음이 느린 소는 일찌감치 출발하여 가장 먼저 문 앞

에 당도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소의 뿔에 타고 있던 쥐가 먼저 문 앞으로 뛰어내렸다. 그래서 쥐가 십이지 동물의 첫 번째가 되고 소가 두 번째가 되었다고 한다. 쥐와 소의 행동을 빗대어 지어낸 이야기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운명을 12지 동물에 연결해 점괘를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인의 마음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 갑오경장(甲午庚戔) 경술국치(庚戌國恥) 등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의 명칭을 보면 과거 십간십이지 문화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인을 지배했던 걸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4·19, 5·16, 6·25, 5·18처럼 사건을 숫자로만 표기하는 것을 더 편안해 하는 세대가 됐다.

쥐는 농작물을 해치고 약삭빠른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

지를 갖고 있지만 새끼를 많이 낳고 부지런하여 다산(多産)과 부(富)의 상징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다. 마키마우스가 디즈니의 대표적 캐릭터가 된 것을 보면 쥐는 동서양의 인간 생활에서 뗄 수 없는 동물이다.

올해는 단기로 4353년이다. 듣기만 해도 어색하다. 지금 70대는 초등학교 때 단기로 생년월일을 제출 의무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포함해서 이제 아무도 단기를 모른다. 사주나 점을 봐주며 사는 사람을 제외하면 심간십이지로 햇수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앞으로 중국의 패권시대가 오면 서력기원을 바꾸겠다고 나설지 모르지만.

2020, 20이 연달아 붙은 숫자의 모양이 안정감도 있고 참 멋있어 보인다. 디자이너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 숫자 조합이다.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자라나면 그들

은 2020이라는 숫자조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주 편리하게 말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만들어놓은 2020년의 콘텐츠는 과연 자랑할 만할까.

세계는 천하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미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빠를 뿐 아니라 어지럽다. 세상의 틀과 표준이 흔들리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일으키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의 혼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대변화, 제6의 멸종을 예고하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발판을 흔들어대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이들 글로벌 이슈에 연동되어 있다. 북한핵 문제와 경제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묶여 흔들리게 될 판이다.

2020은 올해를 가리키는 달력의 숫자만은 아니다. 2020은 눈의 건강, 즉 완전한 시력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왼쪽 시력 2.0 오른쪽 시력 2.0"인 정상적인 건강 시력을 말한다. 오리무중인 작금의 국내의 상황을 보며,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의 눈은 과연 이 어둠을 뚫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2020의 시력을 가졌는지 물어보고 싶다.

### 社 說

## 119구조대 출동 효율화해야

지난해 태풍 등의 영향으로 119구조대의 출동·구조건수가 늘어나 하루 평균 2천400여건 출동에 2천건 가까이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구조인원은 273명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구조요청에 따른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모두 88만1천900건, 실제 구조 건수(처리건수)는 70만9천251건이었다. 구조인원은 9만9천555명이다. 하루 평균 2천416건의 출동을 해 1천943건을 처리하고 273명을 구조한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5.2%, 구조건수는 6.9% 증가했다. 구조인원은 4.6% 감소했다. 구조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생활안전분야 구조건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생활안전 분야 구조건수는 전년도보다 13.9%(4만8천915건) 늘어난 40만4천222건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구조 건수는 30만8천769건으

로 1.1%(3천190건) 감소했다. 유형별 증가율은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자연재난이 74.0%(8천840건)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전기사고 34.2%(557건), 별집 제거 16.0%(2만3천24건), 동물포획 11.4%(8천770건), 안전조치 10.0%(6천3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구조 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구조건수가 30.6%(142건) 증가했고 지살(21.0%·3천296건), 수난사고(12.9%·995건), 위치추적(12.5%·1천485건) 관련 구조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태풍 여러 개가 한반도를 지나간 영향으로 생활안전 관련 신고가 늘면서 전체 구조건수가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경북과 울산 등 태풍 피해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119구조대는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재해상황에서만 출동과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119구조대의 호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겨울방학, 가정 내 화재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절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 기간은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안전의식도 해이해지기 쉬워 화재나 화상, 모서리 넘어짐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들만 있는 가정 내 안전교육을 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우선, 난방기 등 전열기구 취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해 성냥·라이터 등

은 물론 어린이 혼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엄마, 아빠와 함께 각종 전기 기구를 점검하고 119신고, 소화기 사용법, 피난요령 등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 주는 것도 자라나는 아이에게 안전의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전열기구 주변에 안전장치를 하고 장난도 삼가야 하며,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직접 따르거나 밥통의 스팀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를 주어야겠다. 만약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덴 곳을 흐르는 찬물에 5~10분 정도 담그고 난 후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간다.

아울러, 낮은 위치의 식탁이나 TV 등을 올려놓는 수납장 등에 의해 아이들이 달리거나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부딪쳐 다치는 경우, 문 밑모서리에 발가락이 끼어 발가락에 상해를 입는 경우, 심지어 장난을 치다가 앞선 사람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례까지 있다.

이런 사고들은 휴지나 솜 등을 두껍게 문쳐 테이프를 이용해

모서리를 감싸놓는다는가 시중에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여 조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이다.

특히, 겨울철 밖에서 눈 놀이 후 젖은 신발이나 양말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미끄럼 사고는 다른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소 집안일에 안전사고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假定) 하에 방학 중에는 조금 더 준비하고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전에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겨울방학동안 소중한 우리아이를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해야겠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의료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b>호남신문</b>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광고국 (062) 224-5800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팩 스 (062) 222-5547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